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란 나의 의지와 권리를 주께 온전히 양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일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상대방의 헌신과 죽음을 강요합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죽음을 잊은 자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의미 있다고 착각하며 노력과 헌신으로 만족을 채우려 합니다.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주변의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나의 의지와 권리를 주님께 온전히 양도했습니까?

자녀, 결혼, 물질, 상처 등과 관련된 영역을 두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돌아서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한 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99개를 내려놓아도 마지막 1개를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마 19:21). 얼마나 ‘많이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 복종했습니다(고전 9:27).

그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빌 4:11). 끊임없이 내려놓고 위임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 믿음을 쌓아 간 것입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빌 4:13). 헬라이어 학자 케네스 웨스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맞이한다.” 내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생명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와 사역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늘 되새기며 살아갑니까?

- ① 나의 사역과 관계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 ② 내가 만든 ‘제한 구역’들은 무엇입니까?